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7/7)	다음 주(7/14)	7/21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	오숙현 성도
	주일오후예배	이윤경 성도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성경 봉독		이빛나 성도	이윤경 성도	편재천 성도
식사 준비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정리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이윤경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27호 2019.7.7.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8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7장, 찬송가 428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19편 113-128절	이	빛	나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60장 1-3절	김	윤	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50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강	진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윤경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 5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7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48편 16-20절
설 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7주일 -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神的) 약속과 표로써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말씀 요약: 사 6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 빛을 비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십니다(1절).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 역할은 순종하면 누구든지 맡을 수 있으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

하나님은 어둠을 비추십니다(2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출 10:23).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엔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로 어둔 세상을 비추십니다.

3. 빛을 비춘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비추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비추심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둠에서 헤매이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4.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어둠에 비취었다’라고 말합니다(요 1:5).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요 1:18). 또한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요 8:12).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요 1:6-8).

5.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한 일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고후 4:5,6).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행 11:26).

6.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불어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입니다(마 5:14-16).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